

‘유림 정신을 봇끝에 담다’…제1회 광주유림서예대전

광주향교서 개막식·입상자 시상식 성료
유교 정신 담은 서예 작품 27일까지 전시

유림의 전통 정신과 서예 문화를 잇는 첫 시도가 광주향교에서 마련됐다.

성균관유도회광주시본부는 23일 오후 2시 광주향교 유도회관에서 ‘제1회 광주유림서예대전’ 개막식과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서예대전은 유림 단체의 활동이 정기 연수나 의례적 행사에 머물러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교와 유림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서예가 유교·유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유학 정신이 깃든 향교 공간에서 전시가 열린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출품작들은 경진 문구와 한시, 사자성어 등 유교적 가치와 맞닿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를 통해 서예가 단순한 조형 예술을 넘어 유림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제1회 광주유림서예대전 개막식과 시상식이 열린 23일 남구 광주향교에서 정영균 성균관유도회광주시본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번 대전에는 광주·전남 지역 향교와 서원 유림, 지역 서예가들의 총 150편 작품이 출품됐으며, 원로 서예인들의 찬조 작품 7편을 더해 전시가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하서 김인후 시문집에 실린 ‘가을밭

을 가는 노인’을 쓴 안동주씨의 서예 작품이 대

상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비롯해 특선과 기로참여상 등

모두 70여 점이 입상했다.

시상식은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을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이후 전시를 통해 작품 하나 하나를 차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당일에는 유림과 서예 동호인, 지역 인사들이 함께 첫 대전의 출발을 지켜봤다.

전시는 서예 작품과 함께 여성유도회 회원들

을 중심으로 한 민화 작품 20여 점도 함께 걸려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정영균 성균관유도회광주시본부 회장은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넓히며, 지역 서예 문화의 저변 확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번 서예대전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마음을 모아 같고닦은 필력으로 완성한 서예 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진심과 정성을 다해 한자리에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첫 행사는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이를 보완해 다음 대회에서는 더욱 충실히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기호석 광주향교 전교는 축사를 통해 “서예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선비의 절개와 인격을 함양하는 수양의 예술”이라며 “붓을 통해 충효예의 정신을 담아내고, 그 묵향으로 맑고 곧은 기품을 전파하는데 이번 서예대전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림학관은 유림의 뜻이 모이는 구심점인 만큼, 앞으로도 유도회 시본부와 함께 서예를 비롯한 전통 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철학·예술 어우러진 인문·예술축제 ‘니체 위크’

카페 필로소피아 29주년 행사



로 기획됐다.

행사의 핵심 프로
그램인 창립 29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26
-27일 이틀간 진행
된다.

‘니체, 현대 정신사를 열다’, ‘니체와 루 살로
메’, ‘니체, 은유에 올라타다’를 주제로 국내 니
체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정
현·정영도·김광수 명예교수를 비롯한 중진 학
자들이 참여해 니체 철학을 시민 눈높이에 맞
춰 풀어낼 예정이다.

심포지엄과 함께 열리는 기념 전시도 눈길을 끈다. 김은중·김정현·김평준·김해성·김병택·
나상옥·노의웅·이근표·서현호·진경우·주홍·
채종기·허달용·황순철·한희원 등 15명의 작가
가 참여해 니체의 사유를 각자의 시각 언어로
해석한 회화·설치·텍스트 작품을 선보인다.

니체의 개념과 문장을 이미지로 확장한 작업
부터 철학적 정동을 시각화한 실험적 작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26일 개막식에는 성진기 카페 필로소피아 대
표와 재종기 은암미술관관장이 참석하며, 27
일에는 김양현 전남대 부총장이 함께해 창립 2
9주년의 의미를 나눈다.

행사 기간 동안 심포지엄 전후로 음악 공연,
페포먼스도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도자공예 기획전’ 개최

내년 4월까지 근·현대적 변화 조망

능성을 확장한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공예가
생활 공예를 넘어 예술 영역으로 발전해 온 과
정을 보여준다. 또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



진전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도자공예의 문화
적 가치 확장도 함께 조명한다.

이밖에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생활도
자박물관 누리집 (dojam.mokpo.go.kr) 또는 전
화 (061-270-848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뛰놀고 체험하며 배우는 ‘지구 시스템’

국립광주과학관, 유아놀이터 새단장

국립광주과학관이 ‘지구시스템’을 주제로
기존 유아놀이터를 전면 새단장하며 23일 관람
객들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 단장한 유아놀이터는 지구시스템
의 4가지 요소(지권·기권·수권·생물권)를 하늘,
땅, 바다, 생명의 이야기로 유아의 눈높이에 맞
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직접 만져보는 놀이
중심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구환경에 대
한 관심을 갖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공간은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4가
지 특색 있는 테마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대근
육을 발달시키는 화산놀이터(지권·사진) ▲36
개월 이하 영유아의 소근육 발달을 돋우고 보호

자를 위한 감성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구름놀
이터(기권) ▲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다놀이
터(수권) ▲꼬마 탐험가가 돼 숲속 동식물을
체험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숲속 캠
프(생물권)가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주 이용 대상인 만큼 ‘안
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필수
안전 검사를 완료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
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
은 “설계 단계부터 설치까지 아이들의 눈높이
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놀이를 통
해 생태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
럽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최명진 기자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도자공예의 전통적 제작 체계와 근·현대적 변
화를 조망한다. (사진)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한국 도자의 주요 작
품과 함께 도자 장구와 바이올린 등 조형적 가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